

# 2019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9호, 제240호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안일자 : 2018년 10월 31일
4. 회부일자 : 2018년 11월 5일

## II . 2019회계연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 예산(안)

#### 가. 세 입

-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55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23억 2백만원 대비 32억 8천 3백만원(14.7%) 증가

하였음. 이 가운데 세외수입은 79억 5천 3백만원, 보조금은 171억 2천 5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7백만원임.

〈표 1〉 2019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9 예산(안)	2018 최종예산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합계		25,585	22,302	3,283	14.7%
일 반 회 계	세외수입	7,953	6,380	1,573	24.7%
	경상적세외수입	300	292	9	3.0%
	임시적세외수입	7,653	6,088	1,565	25.7%
	보조금	17,125	15,043	2,082	13.8%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7	879	△372	△42.3%

○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의 사용료 2억 3천 5백만원, GSEF(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2천 4백만원, 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사용료 1천 2백만원, 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2천 9백만원 등 공유재산임대료 3억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53억 7천 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0억 3천 9백만원, 지난연도수입 2억 3천 6백만원 등 총 76억 5천 3백만원임.
- 보조금 수입은 171억 2천 5백만원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지역특화) 등 국고보조금 40억 8천 8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3억 7천 2백만원 등임.

## 나. 세 출

-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71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453억 7천 2백만원 대비 8.9% 증액되었음.
- 사업비는 2,537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6%(112억 5백만원), 재무활동은 131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9.3% 증액되었으며,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 증액되었음.

〈표 2〉 2019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예산(안)	2018 예산	증 감	증감율
일 반 회 계	계	267,149	245,372	21,777	8.9
	행정운영경비	234	215	19	8.8
	재무활동	13,196	2,643	10,553	399.3
	사업비	253,719	242,514	11,205	4.6

○ 정책 사업별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 2,037억 1천 8백만원

-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500억 3백만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971억 7천 4백만원
-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100억원
- 서울특별시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223억 9천 3백만원
- 중소기업 청년채용 확대 및 일자리 질 개선 31억 2천 6백만원
- 채용차별 119 운영 3억 1천만원 (신규) 등임.

【 노동존중문화 정착 】… 151억 6천 5백만원

- 노동복지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44억 1천 5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억 2천 7백만원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3억 2천 1백만원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22억 5천 6백만원
- 마을노무사 제도 운영 3억원 등임.

【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 … 348억 3천 6백만원

- 국제 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11억 5천 6백만원
-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20억원 (신규)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7억원 (신규)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6억 1천 6백만원
-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31억 5천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113억 2천 7백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2억 2천 1백만원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10억원 등임.

## 2.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사회투자기금의 2019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67억 1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58억 7천 2백만원 대비 8억 4천 6백만원이 증가할 예정임.

〈표 3〉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기금종류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사회투자기금	5,872	22,696	21,850	846	6,718

- 2019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규모는 285억 6천 8백만원으로, 수입·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4〉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수입계획		증감	구 분	2019년 지출계획		증감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계	28,568	16,915	11,653	계	28,568	16,915	11,653
전 입 금	15,600	2,600	13,000	용 자 성 사 업 비	20,500	13,000	7,500
용자금 이자	425	480	△55	비 용 자 성 사 업 비	1,350	1,270	80
용자금 회수	6,536	6,845	△309	기 본 경 비			
이 자 수 입	135	89	46	예 치 금	6,718	2,645	4,073
예치금 회수	5,872	6,901	△1,029				

### Ⅲ. 2019회계연도 예산(안)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1. 세입·세출 총괄

##### 가. 세입

-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255억 8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 223억 2백만원 대비 32억 8천 3백만원(14.7%) 증가함.
- 세외수입은 79억 5천 3백만원, 보조금은 171억 2천 5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7백만원임.

〈표 5〉 2019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9 예산(안)	2018 최종예산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합계		25,585	22,302	3,283	14.7%
일 반 회 계	세외수입	7,953	6,380	1,573	24.7%
	경상적세외수입	300	292	9	3.0%
	재산임대수입	300	292	9	3.0%
	임시적세외수입	7,653	6,088	1,565	25.7%
	기타수입	7,417	5,763	1,654	28.7%
	시·도비반환금수입	5,378	2,014	3,364	167.0%

예산과목	2019 예산(안)	2018 최종예산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그외수입	2,039	3,749	△1,710	△45.6%
지난연도수입	236	325	△89	△27.3%
보조금	17,125	15,043	2,082	13.8%
국고보조금등	17,125	15,043	2,082	13.8%
국고보조금	4,088	3,221	867	26.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1,372	10,323	1,049	10.2%
기금	1,665	1,499	166	1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07	879	△372	△42.3%
보전수입등	507	879	△372	△42.3%
전년도이월금	507	879	△372	△42.3%

○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한국폴리텍 강서캠퍼스 사용료, GSEF 사무실 임대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3억원으로, 전년대비 3% 증가하였음.
- 임시적 세외수입은 76억 5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5.7% 증가하였음. 이는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자치구 노동복지·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전년대비 167%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자치구 보조사업의 집행이 다소 부진했던 것으로 판단됨. 반면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인 그외수입은 전년대비 17억 1천만원(△45.6%) 감소  
 했음.

〈표 6〉 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과 목		내 용	2019년 (안)	2018년	증감률
계			7,953	6,380	24.7%
경 상 적 세외수입	공유재산 임 대 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235</li> <li>칼폴라니연구소 아시아지부 사용료 11</li> <li>GSEF 사무국 사무실 임대료 24</li> <li>공정무역가게 지구마을 매장 임대료 30</li> </ul>	300	292	3.0%
임 시 적 세외수입	시·도비 반 환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근로, 노동복지센터 등 자치구 시비보조금</li> <li>집행잔액 반환금</li> </ul>	5,378	2,014	167.0%
	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자리·노동·사회적경제사업 등 민간 보조금</li> <li>집행잔액 반환금</li> </ul>	2,039	3,749	△45.6%
	지난연도 수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이전 미수납액</li> </ul>	236	325	△27.3%

- 보조금 수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지역특화) 등 국고보조금 40억 8천 8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마을기업 육성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3억 7천 2백만원 등 171억 2천 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20억 8천 2백만원 증가하였음.

- 최근 3년간 일자리노동정책관의 세입예산 대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수납액 사이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표 7〉 최근 3년간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천원)

2018년			2017년		2016년	
예산액	수납액	결산전망액	예산액	수납액	예산액	수납액
22,302	16,719	17,437	17,417	19,393	16,092	20,107

- 세입예산은 해당연도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부정확한 세입 추계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입 추계의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나. 세 출

-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2,671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9%(217억 7천 7백만원) 증액되었음<sup>1)</sup>.

1) 전년도 본 예산 2,343억 3천만원 대비 14% 증가하였음.

〈표 8〉 2019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도		2019년도 예산(안)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증감액	증감률
일 반 회 계	234,330	245,372	267,149	32,819	14.0%	21,777	8.9%
사업비	232,383	242,514	253,719	21,336	9.2%	11,205	4.6%
재무활동	1,732	2,643	13,196	11,464	661.9%	10,553	399.3%
행정운영경비	215	215	234	19	8.8%	19	8.8%

- 이 중 사업비는 2,537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6%(112억 5백만원), 재무활동은 131억 9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99.3%(105억 5천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3천 4백만원으로 전년대비 8.8%(1천 9백만원)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의 증가분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의 확대에 115억 2천 6백만원 증액,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12억 1천 2백만원, 재무활동 중 사회투자기금 전출금 130억원 편성 등에 따른 것임.

○ 반면 전년대비 감소폭이 큰 사업과 감액액을 살펴보면,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에 50억원, 노동복합시설 운영 41억 8천 4백

만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3억 5천만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3억 5천만원,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1억 3천 5백만원 등임.

## 2. 신규 사업 검토

○ 2019년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세출예산 중 신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41억 3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시민참여예산인 노동정책담당관의 ‘교실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1억 2천 5백만원)’을 제외하면, 신규 사업은 채용차별 119 운영,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등 3개 사업임.

〈표 9〉 2019년 신규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2019년도 예산(안)
일자리정책담당관	채용차별 119 운영	310
노동정책담당관	교실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시민참여)	125
사회적경제담당관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2,000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1,700
합 계		4,135

가. 채용차별 119 운영

〈사업별설명서 p.108〉

- 이 사업은 나이, 성별 등에 의해 차별받는 부당한 채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3억 1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음.

〈표 10〉 채용차별 119 운영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채용차별 119 운영	-	310	310	■ 사무관리비 310

-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채용 차별관련 실태조사와 서울형 가이드라인 개발(6천만원), 민간 채용 모니터링(5천만원), 민관협력 캠페인(2억원)을 실시하고, 비 예산사업으로 관련 법령과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들을 신고하는 채용차별 “핫라인”을 운영할 계획임.
- 공공에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배포하여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평등한 채용문화를 확산시키려는 취지에는 공감함.

- 그러나 새로 개발될 가이드라인과 채용차별 핫라인의 적용대상이 서울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에 한정되어 있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사업 효과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됨.
- 서울형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사용을 권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나, 현행 법령상 채용차별에 대한 처벌과 구제방안이 미비하여 계획대로 민간 확산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됨.
- 서울시는 2013년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이력서에 사진과 개인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서울형 표준이력서’ 사용을 권고한 바 있으나, 2016년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금지 조례」의 개정 시<sup>2)</sup> 표준이력서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당시 21개 투자출연기관 중 13개 기관만이 사용 중이었으며, 현재 해당 정책은 유명무실한 상황임.
- 이 사업 또한 서울형 표준이력서 사용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적용기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권고에

2) 2017.1 공포, 제5조제3항 신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치지 말고,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나.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사업별설명서 p.187〉

- 혁신성장거점 사업지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앵커나 유희시설을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2019년 2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음.

〈표 11〉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활성화	-	2,000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비 1,970</li> <li>■ 감리비 30</li> </ul>

- 2013년부터 자치구 사회적경제 공간지원을 위해 추진한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sup>3)</sup>이 올해로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민간에 직접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 지원을 위해 이 사업을 새로 추진하게 되었음.

3) 2013년부터 유희공간을 확보한 자치구에 8억원 이내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3년 성북, 영등포, 관악, 2014년 노원, 양천, 동작, 2015년 성동, 도봉, 2016년 서대문, 용산, 2017년 동대문, 금천을 선정 및 지원했으며, 2018년 현재 집행실적 없음.

- 서울시는 도시재생지<sup>4)</sup>, 혁신성장거점 사업지 앵커시설<sup>5)</sup> 중 6개 지역을 선정,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특화공간을 조성하고, 시설 운영은 민간위탁할 예정이다.

### 〈 사회적경제 활성화 공간 구성(안) 〉

고 층	: 입주기업 임직원 쉼터 및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 등
중 층	: 창업기업 입주공간, 입주단체 사업화 지원시설 및 교육·컨설팅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업 공간 : 공유·단독 사무실, 세무·회계·법률 컨설팅, 작업실 등</li> <li>▸ 연수 공간 : 집수리 및 목재·철재·섬유 등 재생자원을 활용한 제작 교육</li> <li>▸ 교육 공간 : 초·중·고등학생, 부녀자회·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사회적경제 교육</li> </ul> ※ 연수 공간 구성(안) : 목공, 철공, 직물 등 3~4개 분야 작업장, 자재 창고
저 층	: 아동·어르신 돌봄 및 커뮤니티 공간(보육·건강검진·나눔밥상·북카페 등)

- 그러나,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공간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12개 자치구에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별도의 창업과 교육·컨설팅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들 공간과의 연계와 협업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2017년 2월 지정된 도시재생 2단계 14개소

- 중심지 재생(영등포·경인로, 정동, 마장동, 용산전자상가, 독산우시장, 청량리, 4.19) 7개소
- 주거지 재생(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동, 목2동, 난곡동, 안암동) 7개소

5) 홍릉 서울바이오허브/ 창동·상계 바이오ICT 첨단 산업단지/ DMC VR·AR센터, 5G·디지털사이버지 테스트베드/남산 애니메이션 센터/ 동대문 패션 혁신허브/ 마곡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66개 앵커시설 구축예정



다.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별설명서 p.191>

- 서울시민의 주요 생활터전인 공동주택<sup>6)</sup>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스스로가 사회적경제의 주체로 참여하여 생활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소비하는 혁신 모델을 도출하고자, 2019년 17억원을 신규 편성했음.

<표 12>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육성	-	1,700	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550</li>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50</li> </ul>

- 서울시의 계획에 따르면, 15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해 (최대 10개), 단지별로 3년간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도별 주요 추진사항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음.

6) 서울시민의 62%는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인 공동주택에 거주 중임.

〈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추진계획 〉

구분	추진목표	주요 추진사항	지원액
1단계	공동체형성 및 가치 공유	<b>지역문제 도출 및 해결방안 모색</b> · 돌봄·헬스케어·먹거리 등 공동 소비기반 서비스 (보육·건강검진·장터 등)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형성 · 주민 생활 불편 사항 발굴 및 서비스 디자인	1년차 105백만원 7)
2단계	경제 공동체 형성	<b>공동 소비·공동 생산으로 경제공동체 형성(사회적경제기업 설립)</b> · 주민 커뮤니티의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운영으로 주민일자리 창출 · 유희공간내 시간제 돌봄, 어르신 돌봄, 주차장공유, 북카페 등 공동주택 생활기반형 사업 지원	2년차 65백만원
3단계	선순환 경제 구축	<b>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모델로 정착</b> · 집수리, 업사이클링, 청소·조경·경비 등 추가 연계사업 발굴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 증대 · 공동주택의 공동 생산·소비로 창출된 수익을 지역서비스 창출을 위해 재투자 등 선순환 체계 구축	3년차 30백만원

○ 공동주택단지의 주민 스스로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들 주민기업이 집수리, 청소·조경·경비 등의 사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공동 생산과 소비를 통한 선순환 경제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지역공동체 문화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인식제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공동주택에 사업수행을 위한 전용 사업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7) 2019년 동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11억 5천만원 중, 공동주택 사업지원비는 10억 5천만원(10개소), 자치구별 사업운영비 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있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일부는 단지 내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이 사업은 공동주택의 대표 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운영할 계획인 만큼, 일부 주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주민 전체를 위한 사업이 되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이밖에도 사무관리비에 광역지원단과 코디네이터 등 사업 지원을 위한 인력의 인건비(광역지원단 8천만원(2명), 코디네이터 3억원(10명))를 편성한 바, 공동주택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한편 현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범사업의 결과와 효과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시범사업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개요〉

- ▶ 사업명 : 2018년 공동주택 “같이 살림” 프로젝트 시범사업
- ▶ 사업목적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본사업 실행기반 마련
- ▶ 사업기간 : 2018년 9월 ~ 12월
- ▶ 참여단지 : 관악구 휴먼시아 1,2단지 등 9개 단지
- ▶ 사업추진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3. 주요사업별 검토

#### 가.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별설명서 p.27〉

-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어려운 고용여건에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의 일 경험을 통해 안정적인 민간일자리로의 연계를 목적으로, 2013년부터 시행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사업임.
-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에는 전년대비 115억 2천 6백만원 (13%) 증가한 971억 7천 4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표 13〉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안)

(단위 : 천원)

사업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서울형 뉴딜일자리	85,648,000	97,173,629	11,525,6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4,649,900</li> <li>■ 사무관리비 5,304,629</li> <li>■ 공공운영비 24,000</li> <li>■ 민간경상사업보조 26,890,200</li> <li>■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0,304,900</li> </ul>

- 이 사업에는 18세 이상의 정기소득이 없는 시민은 누구나 최대 23개월까지 근무가 가능하고, 생활임금(2019년 10,148원)을 보장받으며, 2018년 사업을 통해 4,140개의 뉴딜일자리를 창출하였음.
- 저성장 시대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공공에서 청년 등 시민에게 민간일자리로의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 경험을 주는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함.
- 그 동안 이 사업은 2015년 203억원에서 2019년 971억원까지 약 5배 규모로 증가했으며, 사업 종료 후 취업률이 52.9%(2017년도)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음.

〈표 14〉 최근 5년간 뉴딜일자리 사업 현황

(’18년 11월 기준, 단위 : 명, %)

연 도	사업명	선발 인원	사업비	집행률	취업률
2015	45개 사업	1,730	203억원	78.1	42.2
2016	78개 사업	2,160	251억원	85.7	52.0
2017	266개 사업	5,294	679억원	84.5	52.9
2018	279개 사업	4,140	856억원	74.6	-
2019	260개 사업	5,500	971억원	-	-

- 그러나 일 경험을 축적할 수 없는 단순 사무업무이거나, 관련 자격자만 할 수 있는 전문 업무 수행 문제, 열악한 근무환경, 뉴딜일자리 경력 불인정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또한 참여자의 실질적인 취업연계와 성과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의 정확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증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18년 뉴딜일자리사업 평가<sup>8)</sup>에 따르면, 238개 평가대상 사업 중 우수사업은 22.7%에 그치고 있으며, 이 중 자치구 미흡사업 (31.9%)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15〉 2018년 뉴딜일자리 사업 평가

평가 분야별	전체 대상사업	평가 결과		
		우수사업	양호사업	미흡사업
계	238	54 (22.7%)	125 (52.5%)	59 (24.8%)
실·국·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100	28 (28.0%)	57 (57.0%)	15 (15.0%)
자치구	138	26 (18.8%)	68 (49.3%)	44 (31.9%)

8) 2018년 11월 실시, 총 238개 사업 평가 (하반기 시작사업 평가 제외)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 우수·양호사업에 한해 계속사업으로 선정

- 이러한 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2019년 자치구 뉴딜일자리 사업은 전년도 700개에서 1,100개로 대폭 확대된 바,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표 16〉 2018-2019년 뉴딜일자리 사업 운영 계획

(단위 : 개)

연도	합계	서울시 추진사업	자치구 추진사업	민간공모 사업					
				소계	市 주요사업	공공 특화분야	민간기업 맞춤형	청년 아이디어	대학-강소 기업 연계
2018	5,405	2,655	700	2,050	300	300	400	300	750
2019	5,500	2,500	1,100	1,900	350	350	400	200	600

나.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58〉

- 서울시는 시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취·창업 지원과 서울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해 네 곳의 시립 기술교육원을 운영 중에 있음.

〈표 17〉 서울시 기술교육원 현황

구 분	동 부	중 부	북 부	남 부
위 치	강동구 고덕동	용산구 한남동	노원구 상계동	경기도 군포시
위 탁 법 인	(학)경북대학교	명지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재)한국능력개발원	(사)엘림복지회
현위탁기간	'16.3.1 ~ '19.2.28	'17.3.1 ~ '20.2.28	'16.3.1 ~ '19.2.28	'16.3.1 ~ '19.2.28

- 2019년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223억 9천 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6천 3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임.

〈표 18〉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지원	21,629,357	22,392,682	763,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관리비 148,000</li> <li>■ 연구용역비 60,000</li> <li>■ 공공운영비 24,000</li> <li>■ 민간위탁금 17,448,512</li> <li>■ 민간위탁사업비 4,736,170</li> </ul>

- 기술교육원에 지급되는 민간위탁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직업훈련비가 전년대비 약 30억원 증가했음.
- 이는 2018년 남부기술교육원의 예산이 반액으로 삭감되어 표준훈련비의 54%만을 편성했던 것을, 평년수준인 60% 수준으로 인상한 데에 따른 것임.



〈표 19〉 민간위탁금 예산(안) 세부내역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직업훈련비(정규·단기과정 훈련비, 식사비, 기숙사비) 12,797,614,000원 = 2,797,614천원	○ 직업훈련비 = 15,747,232천원  - 표준훈련비(정규, 단기 과정 운영) 14,247,307,000원 = 14,247,307천원  - 식사비 3,500(식비)*362,550(인원, 교육일수) = 1,268,925천원  - 기숙사비(남부) 231,000,000 = 231,000천원
	○ 기타운영비 = 1,431,800천원	○ 기타운영비 = 847,800천원
	- 어학강좌비 및 문화활동비 134,000,000원 = 134,000천원	- 저소득층 훈련수당 250,000(수당)*2,400(인원, 개월) = 600,000천원
	- 교육원내보육 44,000,000원 = 44,000천원	- 공통경비(기능대회 성과금 등) 207,800,000원 = 207,800천원
	- 성과금, 워크숍 등 153,800,000원 = 153,800천원	- 공통경비(통합입학식 등) 10,000,000*4(기관) = 40,000천원
	- 저소득층 훈련수당 1,100,000,000원 = 1,100,000천원	○ 지역맞춤형과정 대응투자비 150,000,000원 = 150,000천원
	○ 직업교육훈련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7,880,000원 = 187,880천원	○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87,880,000원 = 187,880천원
		○ 문화활동비 23,900,000*4(기관) = 95,600천원
		○ 자매도시 청소년 초청(남부) 420,000,000 = 420,000천원

- 표준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에 따른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로, 양질의 직업교육을 위해서는 표준훈련비의 100%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됨.
- 한편 남부기술교육원의 위탁운영상 발생한 여러 문제로 시의회의 지적과 개선요구가 계속됐음에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2019년 혁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비 6천만원을 신규 편성했음.
- 그러나 2013년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혁신을 위한 기본방안 연구”와 2018년 “서울특별시 남부기술교육원 개편방안 연구” 등에서 다양한 개편방안이 이미 제시됐음에도 혁신적인 변화의지 없이 동일한 연구용역을 재차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이번 기술교육원 개편방안 연구용역이 단순히 의회의 지속적인 지적을 임시 회피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이 듦.
- 이제는 산업구조와 외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양질의 우수한 기술교육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 다. 일자리사업 인건비 기준 통일 필요

〈사업별설명서 p.23, p.27, p.41, p.78, p.227, p.230〉

- 서울시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심화된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서울형 뉴딜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역 일자리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들 일자리 연계사업의 인건비 기준이 사업별로 제각각 다르며, 정확한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존재함.

〈표 20〉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예산 산출내역

사업명	2019 예산(안)	
	과목구분	인건비 산출내역(예)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분청 및 사업소 참여자 인건비 1,577천원*5.05개월*500명*2회 = 7,963,850천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전일근무형 2,300명*2,025천원*9개월 = 41,917,500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참여자 임금 1,300,000원*650명*4개월*2회*0.75 = 5,070,000천원
지역 일자리협력사업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급여 및 수당 등 2,257,152,000 = 2,257,152천원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비보조사업)	○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 2,250,000원*60명*12개월*0.9 = 1,458,000천원

사업명	2019 예산(안)	
	과목구분	인건비 산출내역(예)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일자리창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일자리창출사업 = 8,623,000천원
		- 전문인력 = 4,028,856천원
		계속 3,028,856,000 = 3,028,856천원
		신규 1,000,000,000 = 1,000,000천원
		- 일반인력 = 4,594,144천원
		계속 4,211,034,000 = 4,211,034천원
		신규 383,110,000 = 383,110천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의 경우 최저임금<sup>9)</sup>을 준용해 주 30시간 근로기준으로 산출한 130만원을 편성했으며, 지역일자리 협력사업과 지역자산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은 총 인건비만을 기입하여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알 수 없음.

- 또한 동일한 성격의 공공일자리제공 사업임에도 ‘서울형 뉴딜일자리’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타 일자리사업의 인건비 기준은 모두 최저임금을 준용하고 있음.

9)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 각 사업이 준수하는 지침과 제한된 예산 등의 사정은 있으나, 서울시의 사업참여자에 한해서는 동일한 인건비 기준(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표 21〉 생활임금 적용대상

시·투자출연기관	• 2015년부터 공무원, 기간제 등 직고용 노동자 전체
민간위탁	• 2016년 7월부터 시비 100% 지원 사업 대상 단계별 적용
자회사	• 교통공사 3개 자회사
공공 일자리	• 뉴딜일자리 적용

라.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130〉

- 서울시는 감정노동종사자를 돕기 위한 상담,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다양한 보호체계구축 사업을 수행하고자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센터”를 운영 중이며, 2019년 13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음.

〈표 22〉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300,000	1,321,242	21,242	■ 민간위탁금 1,321,242

- 민간위탁금은 센터 직원들의 급여·수당 등 인건비 3억 9천만원, 교육 훈련비, 기타 경비 등 관리운영비 1억 7천 8백만원, 감정노동종사자 보호와 인식 개선 등 사업비 7억 5천 4백만원임.

〈표 23〉 민간위탁금 세부편성내역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위탁금	○ 감정노동보호센터 인건비 등 275,045,000원 = 275,045천원	○ 감정노동보호센터 인건비<11명> 등 389,802,000원 = 389,802천원
	○ 감정노동보호센터 관리운영비 212,482,000원 = 212,482천원	○ 감정노동보호센터 관리운영비 177,530,000원 = 177,530천원
	○ 감정노동보호센터 사업비 812,473,000원 = 812,473천원	○ 감정노동보호센터 사업비 753,910,000원 = 753,910천원

- 2018년 10월 신설된 센터의 예산집행률<sup>10)</sup>이 이미 72%에 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2019년 예산은 과소 추계되어 있음.

- 특히 인건비의 경우는 독립센터로 분리되면서 기존 노동권익센터 내 근무 인원(5명)이 대폭 확대(11명)된 바, 이에 필요한 적정 인건비가 산정되어야 할 것임<sup>11)</sup>.

10) 2018.11.7.기준

11) 2018년 센터의 인건비는 개소 예정시기인 5월을 기준으로, 각각 나누어 산출하였고, 2019년 예산은 2018년도 인건비를 산출해 공무원 급여 인상률(1.8%)을 반영하였음.

- 또한 직원 경력 등 실제 호봉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sup>12)</sup>, 현행대로 예산 집행 시 인건비 부족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전국 최초로 감정노동이라는 새로운 영역의 노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감정노동보호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함.

마.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246〉

- 이 사업은 소셜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특화공간인 ‘소셜벤처 허브센터’(2019.4 개관)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10억원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였음.

〈표 24〉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600,000	1,000,000	400,000	■ 민간위탁금 1,000,000

12) 직원 모두 1호봉 기준으로 산출

- 서울시는 2018년 자치구 소셜벤처 지원사업을 위해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희망 자치구의 부족으로 자치구에 2억원만을 지원(서대문구)하고, 나머지 4억원은 서울시가 직접 소셜벤처허브 센터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 예산 변경(자치단체자본보조금→시설비, 2018.8.24.)을 거쳐 소셜벤처허브 센터를 조성하였으며,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임.
- 이 센터는 소셜벤처<sup>13)</sup>, 특히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에이블 테크<sup>14)</sup> 기업 지원 특화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가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창업보육과 소셜벤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이 선정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서울시는 2018년부터 “사회문화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의 예산으로 소셜벤처 육성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18년 10억원, 2019년 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사업별설명서 p.250 참고>

---

13)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과 경영혁신을 접목한 기업

14) able-tech,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보조공학 기기나 서비스



〈표 25〉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예산(안)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경상 사업보조	○ 18년 소셜벤처 혁신형 사업 200,000,000*5개 = 1,000,000천원	○ 19년 소셜벤처 혁신형 사업 100,000,000*7개 = 700,000천원

- 따라서 혁신형사업 예산을 통한 소셜벤처 육성·지원사업과 소셜벤처 허브센터에서 수행할 사업이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향후 센터 운영의 차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발굴과 지원에 주의가 요구됨.

바. 사회투자기금 전출

〈사업별설명서 p.269〉

- 서울시는 고갈이 우려되는 사회투자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2019년 130억원의 기금전출금을 편성했음.

〈표 26〉 사회투자기금 전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예산	2019예산(안)	증 감	산 출 내 역
사회투자기금 전출		13,000	13,000	■ 기금전출금 13,000

- 사회투자기금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조성·운용 중이며, 조성 이래 총 331개 기업에 817억원을 용자했음.
- 초기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었던 사회투자기금은 매년 잔액이 감소하여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표 27〉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기금 잔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도말 현재액	37,975	32,757	22,857	9,926	12,521

- 기금 잔액 감소에 따라 매년 기금의 운용 규모 또한 감소해왔으며, 내년도 130억원의 추가 진출로 기금 조성 이래 최초로 운용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음.

〈표 28〉 연도별 사회투자기금 운용 규모

(단위: 백만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운용 규모	50,356	41,517	38,460	31,680	22,929	16,915	28,568

- 그러나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도 기금 운용을 위한 일반회계의 추가 전출이 필요하며, 기금의 최대 용자기간이 5년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회수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 용자금의 적기 회수를 통한 기금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표 29〉 사회투자기금 용자/회수 내역

(’18년 9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별 채권 잔액			10,900	15,790	25,388	40,462	41,335	42,764
채권 이월액 (A-B)		42,764	10,900	4,890	9,598	15,074	873	1,429
지출	용 자 금 (A)	69,164	10,900	7,488	14,612	20,664	9,884	5,616
수입	용자원금상환 (B)	26,400	0	2,598	5,014	5,590	9,011	4,187

## IV.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

### 1. 개요 및 조성 현황

-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융자 지원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2년부터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용 중임.
- 2019년도말 사회투자기금 조성액은 전년대비 8억 4천 6백만원이 증가된 67억 1천 8백만원으로 예상됨.

〈표 30〉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조성 계획

(단위 : 백만원)

2018년도 말 조성액(A)	2019년 조성계획			2019년도 말 조성액(A+B)
	수입	지출	증감(B)	
5,872	22,696	21,850	846	6,718

- 2019년말 총 조성규모는 67억 1천 8백만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658억 9천 4백만원을 포함한 726억 1천 2백만원임.

〈표 31〉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 : 백만원)

2019년도 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 채권	총 조성규모
6,718	65,894	72,612

## 2. 수입 및 지출 검토

-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의 운용 규모는 285억 6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억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일반회계로부터 130억원이 추가 전입된데 따른 것임.

〈표 32〉 2019년도 사회투자기금 수입·지출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수입계획		증감	구 분	2019년 지출계획		증감
	2019년	2018년			2019년	2018년	
계	28,568	16,915	11,653	계	28,568	16,915	11,653
전 입 금	15,600	2,600	13,000	융 자 성 사 업 비	20,500	13,000	7,500
융자금 이자	425	480	△55	비용자성 사 업 비	1,350	1,270	80
융자금 회수	6,536	6,845	△309	기본경비			
이 자 수 입	135	89	46	예 치 금	6,718	2,645	4,073
예치금 회수	5,872	6,901	△1,029				

- 사회투자기금의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6억원, 이자를 포함한 민간  
 용자금 회수 수입 69억 6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58억 7천 2백만원,  
 이자수입 1억 3천 5백만원임.
- 전입금 156억원 중 26억원은 사회주택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용자를  
 위해 주택정책국(일반회계)에서 출연했으며, 향후 사회주택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5년간(2016~20년) 총 130억원(연간 26억원)을 출연할  
 예정임.
- 사회투자기금의 지출은 융자성사업비에 205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13억  
 5천만원(기금관리비 포함), 예치금 67억 1천 8백만원임.

### 3. 사업별 검토

- 사회투자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으로 기금의  
 전면위탁이 금지되어 2017년부터 직영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사회적  
 금융기관을 용자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일정비율의 매칭을 통해  
 자금을 확대조성한 후 재융자하고 있음.

- 2019년 사회투자기금의 사업비는 218억 5천만원으로, 사회적기업에  
 융자하는 융자성 사업비와 임팩트투자펀드 출자금,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사업비 등 비융자성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음.

〈표 33〉 2019년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2019년(안)	2018년	증 감
사업비 합계		21,850	14,270	7,580
융자성 사업비		20,500	13,000	7,500
	소셜하우징 사업 융자	5,000	5,000	0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3,000	8,000	5,000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 투자사업 지원 융자	10,000	8,000	5,000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연계지원	3,000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융자	2,500	-	2,500
비융자성 사업비		1,350	1,270	80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1,000	1,000	0
	임팩트투자펀드 조합 출자금	1,000	1,000	0
	사회적금융기관 지원	150	130	20
	기금관리비	200	140	60

가. 소셜하우징 사업 용자

〈사업별설명서 p.279〉

- 이 사업은 주거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회투자기금을 통해 소셜하우징(사회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50억원을 편성했음.

〈표 34〉 소셜하우징 사업 용자(안)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18년 당초계획	2019년 운용계획(안)
민간융자금	○ 소셜하우징(사회주택) 용자 1,000 * 5개 기관 = 5,000	○ 소셜하우징(사회주택) 용자 1,000 * 5개 기관 = 5,000

- 서울시는 역량이 풍부한 민간 사회적 금융기관을 용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하고 해당기관에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하고 있음.
- 수행기관은 기금과 3:1~1:1(시:민간)의 매칭비율로 자금을 조성하며, 소셜하우징 관련 사회적기업에 최대 3% 이내의 금리, 최대 8년 상환(최대 2년 거치) 조건으로 재융자하고 있음.



- 2018년 소셜하우징 용자사업에 총 3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과 채용자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5〉 2018년 소셜하우징 용자-채용자내역

(’18년 10월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수행기관	시용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채용자 기업 수	채용자 비용
합계	3,100	1,070	4,170	0	0
(사)나눔과미래	2,000	670	2,670	0	0
(주)비플러스	500	200	700		
(재)한국사회투자	600	200	800		

- 서울시는 당초 5개의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10억원씩 용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 3개 기관에 31억원을 용자하는데 그쳤으며 채용자 기업은 현재까지 없음.
  -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반기 수행기관이 11월 중순 선정되어 채용자내역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상반기 소셜하우징 용자 수행기관 선정내역 없음).
- 또한 수행기관 중 “(사)나눔과 미래”와 “(재)한국사회투자”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되어, 동일한 몇몇 수행기관에게만 계속 용자가 이뤄지는 상황임.

-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용자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7년에는 80억원의 용자를 계획했으나 실제 용자금액이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2018년도 용자 계획을 50억원으로 감소시킨 바 있음.

〈표 36〉 최근 5년간 소셜하우징 용자 내역

(단위 : 개, 백만원)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기업수 (수행기관수)	5	6	16	9(3)	0(3)
용자금액	4,012	5,883	7,644	2,828	0

- 일부 수행기관만이 용자 지원을 받고 그마저도 연말에 선정되어 2018년 용자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와 동일한 용자 계획을 수립한 것은 기금운용계획이 부실함을 반증하는 것임.
- 2019년 목표인 5개 기관의 선정과 편성 기금액의 전액 채용자가 가능할지 의문이 들며, 채용자 활성화를 위해 수행기관 선정시기 조정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나.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

〈사업별설명서 p.287〉

-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에 전년대비 50억원 증가한 1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행기관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투자 사업을 지원하는데 100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연계지원에 30억원, 임팩트 투자펀드 조합 출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음.

〈표 37〉 사회적경제기업 투·융자(안)

(단위 : 백만원)

과목구분	2018년 당초계획	2019년 운용계획(안)
민간융자금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1,600 * 5개 기관 = 8,000	○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2,000 * 5개 기관 = 10,000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융자 연계 지원 300 * 10개 기관 = 3,000
출자금	○ 사회투자펀드(중소기업또는 신기술사업) 조합 출자금 500 * 2개 기관 = 1,000	○ 임팩트투자펀드(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투자) 조합 출자금 1,000 * 1개 기관 = 1,000

(1)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

- 이 사업은 소셜하우징 융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을 융자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해 무이자로 기금을 융자한 후, 이들

기관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가치창출 프로젝트에 채용자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 공모를 통해 선정된 수행기관은 서울시의 융자금과 일정비율의 매칭 (시:민간 3:1~1:1)으로 자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에 연 3% 이내 금리, 최대 5년 상환(최대 2년 거치) 조건으로 채용자함.

○ 이를 위해 서울시는 2018년 총 7건의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기관과 채용자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38〉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적투자 사업 지원 융자-채용자내역

(’18년 10월 기준, 단위 : 개, 백만원)

수 행 기 관	시 융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채용자 기업수	채용자 비용
합 계	8,000	3,242	11,242	32	2,291
(사)신나는조합	540	180	720	4	320
	900	300	1,200	-	-
한국사회혁신금융(주)	500	170	670	14	670
	950	340	1,290	-	-
동작신용협동조합	1,600	800	2,400	12	861
	1,400	700	2,100	-	-

수행기관	시용자금	수행기관 매칭자금	총사업비	재용자 기업수	재용자 비용
더임팩트 주식회사	380	150	530	2	150
(주)비플러스	380	152	532	5	290
(재)한국사회투자	600	200	800	-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750	250	1,000	-	-

- 서울시는 올 한해 당초 계획 금액 모두를 수행기관에 용자지원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으로 22억 9천 1백만원이 재용자되었음.
- 그러나 11월 중순 선정된 하반기 수행기관의 재용자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회계연도 내에 더 많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용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기관의 선정 시기를 고려해야 함.
- 또한 재용자 기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소셜하우징 용자분야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수행기관 재용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임.

〈표 39〉 채용자 세부내역(사회적경제기업 용자)

수행기관	용자기업	기본정보	최초 용자일	상환 만료일
동작신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	·서울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용도 : <u>사회주택 시설자금</u>	18-06-19	23-06-19
	마을과집 한국사회주택 협동조합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용도 : <u>사회주택 시설자금</u>	18-09-12	23-09-12
	(재)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용도 : <u>사회주택 시설자금</u> *임대차기간 연장에 따라 최대5년간 연장가능	18-09-14	20-09-14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동네	·서울시 소재 협동조합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 대상 사회주택 운영 ·용도 : <u>사회주택 시설자금</u>	18-09-18	23-09-18
(사) 신나는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 돌봄센터	·서울 소재 사회적기업/사협 ·장기요양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등 ·용도 : 지역복합돌봄센터 건립을 위한 <u>토지 매입 비용</u>	18-09-11	19-09-25
	언더독스	·서울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창업교육, 사회혁신가 양성사업,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용도 : 신규고시원 <u>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u>	18-09-21	22-09-25

## (2) 임팩트투자펀드(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 투자) 조합 출자금

- 이 사업은 기금의 융자사업 이외에 사회적금융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사업으로, 2019년 ‘임팩트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억원을 편성했음.
- 서울시는 기금을 통한 재정지원과 융자를 넘어, 임팩트투자<sup>15)</sup>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발굴하여 투자→성장→자금회수→재투자의 투자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임.
- 투자조합은 약 50억원의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서울시는 최대 10억 원을 출자하며, 투자대상에 서울시 출자금의 150% 이상 투자해야 하는 조건이 있음.
  - 조합의 투자대상은 서울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 등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등임.
- 그러나 2018년도 기금을 통해 출자한 10억원으로 조성한 투자조합이

---

15) 투자를 통한 수익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행태

지난 11월 중순 결성<sup>16)</sup>된 바, 새로운 투자조합을 긴급히 추가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다.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용자 <사업별설명서 p.292>

- 민간 사회적경제 공동체가 사무·주거·커뮤니티 등 클러스터 공간 조성 시, 기금을 융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표 40>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용자(안)

과목구분	2018년 당초계획	2019년 운용계획(안)
민간융자금		○ 민간자산의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용자 2,500,000천원*1개기관 = 2,500,000천원

-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 사회적경제 자산화 추진 기관을 선정 한 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최대 25억원, 10년까지 2%의 저리로 자금을 융자할 계획임.
- 기금의 타 융자사업이 수행기관을 통해 재융자구조로 운영되는 것과는

16) 2018년 10월 다담인베스트먼트(주) 운용기관 선정, 11월 16일 결성총회 개최



달리, 이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토지·건물 등을 담보 설정하여 여신 거래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 다만 융자혜택을 받는 대상이 단 한 개 기관에 불과해 해당 사회적경제 공동체에 대한 특혜로 비취질 수 있으며, 서울시가 사회적경제 공간 조성을 위한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회적경제 공동체 공간 조성을 위해 대규모의 융자가 필요한지 신중히 판단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김나래	02-2180-8057